

## 구약성서 관직명 번역에 관한 연구<sup>1)</sup>

김영진\*

히브리어 성서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다른 문화적 배경과 정치체도하에서 사용되던 용어를 어떻게 우리말로 옮기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곧 현재 우리말 성서 번역에 있어서 정치와 관직명에 관련된 용어를 정확히 번역하였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한다. 정치적 용어는 그 용어가 사용되는 지역이나 나라의 독특한 정치 체제와 제도에 따라 각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관직명과 그 기능에 대해서도 단지 언어적 유비만으로 한 문화권의 관직명을 다른 문화권의 관직명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에서 **רֶשֶׁת**는 관리, 지도자 등을 뜻하는데 이와 언어적으로 유비되는 단어는 아카드어 *šarru*이다. 그런데 아카드어 *šarru*는 왕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히브리어와 아카드어가 언어적으로 서로 유비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관직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직명이나 정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관직명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주변 국가의 정치적 용어나 관직명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발굴 결과 드러난 비문을 통하여 구약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관직명이나 혹은 정치 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 용어에 대한 바른 이해 및 정확한 우리말 번역을 찾고자 한다. 본 논문을 위하여 히브리어 원문에 대한 어원적 접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기록을 비교하면서 가장 가까운 원어의 의미를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우리말을 찾고자 한다.

### 1. 정치적 용어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정치 제도를 뜻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다. 즉, 왕조를 의미하는 단어의 정확한 번역이 매우 어렵다. 이것은 지금까지 고대 이스라엘

---

\* 연세대학교 교수, 구약학

1) 이 글은 김영진, “성서에 등장하는 관직명의 번역,” 『말씀의 뜻 밝혀주시오: 민영진 박사 회갑 기념』 제2권, 왕대일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318-327 을 수정·확대한 것임

의 정치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בית and עבד는 고대 이스라엘의 국제 정치의 역학 관계를 묘사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성서 본문이 전하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 1.1. “왕조”를 뜻하는 בית

왕조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שושלת인데 구약성서에서는 이 단어대신 בית가 많이 사용되었다. 구약성서에 2000 번 이상 등장하는 히브리어 בית에 대하여 쾰러(L. Koehler)와 바움가르트너(W. Baumgartner)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제시한다. (1) 집(dwelling house), (2) 거주지(dwelling place), (3) 집의 안(interior), (4) 가족(family) 그리고 (5) 왕조(dynasty) 등이다.<sup>2)</sup> 이 가운데서 “PN(= Personal Name) + בית”형식으로 등장하는 것 가운데 PN이 새로운 왕조를 창시했을 경우 בית는 “왕조”로 해석해야만 한다. 이 경우 בית는 아카드어는 bī에 해당한다. 그런데 bī + PN의 경우 아카드어 bī는 항상 “왕조”로 번역되어 왔다. 이러한 단적인 예는 히브리어의 בית עמרי가 아카드어로는 bī Humuri로 기록되었으며 아카드어에서의 그 뜻은 문자적인 의미인 “오프리 집안” 혹은 “오프리 가(家)”가 아니라 “오프리 왕조”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사용된 בית는 모두 “왕조”로 번역해야만 한다. 구약성서의 대표적인 예는 בית דוד(다윗 왕조), בית עמרי(오프리 왕조), בית חזאל(하사엘 왕조), בית ירבעם(여로보암 왕조; 왕상 13:34; 14:10, 4; 15:29; 왕하 13:6; 암 7:7) 등이다. 그런데 이들에 대하여 구약성서는 각각 다윗 가문, 오프리 가문, 하사엘의 집(암 1:4) 혹은 여로보암의 집 등으로 번역하였다. 여로보암이란 이름은 구약성서에 두 사람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 בית ירבעם으로 여로보암 왕조를 뜻하는 것은 처음 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한 여로보암의 경우에 사용된다. 다윗 왕조에 상응하는 정치집단으로서 여로보암 왕조(בית ירבעם)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בית를 정치적 의미로서는 반드시 왕조로 번역해야 하지만 문학적인 기법에 의하여 기록된 경우에는 그 문학적 기법을 살려서 그냥 “집”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아모스 1:4의 בית חזאל이다. 본문에서 בית חזאל은 동의적 평행법에 의하여 ארמנות בן-הדר(하다드의 궁궐들)와 같은 의미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왕조의 의미보다는 ארמנות(궁궐)에 상응하는 말로서 “집”이 더 적절하다. 따라서 현재의 번역처럼 ‘하사엘의 집’으로

2) L. Koehler and W.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이하 HALOT) vol. 1 (Leiden: E. J. Brill, 1994), 124-125.

번역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예는 성서 밖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1993년 단에서 발견된 아람어 비문의 제 9행에서 남 유다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בית דוד**(다윗 왕조)가 사용되었다.<sup>3)</sup> 이 기록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Bit Humri*라고 부르고,<sup>4)</sup> 또 아람 다메섹을 *Bit Haza'ili*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다윗 왕조라는 명칭이 남 유다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히브리어 **בית**는 다윗 가문이 아니라 정치적 용어로서 ‘다윗 왕조’를 뜻함을 쉽게 알 수 있다.<sup>5)</sup>

따라서 성서나 성서 외적인 증거를 통하여 **בית**가 정치적 용어로 사용되었을 때, 특히 **בית**가 사람의 이름과 함께 사용되었을 때는 “왕조”로 번역해야 한다

## 1.2. “봉신”을 뜻하는 **עבד**

구약성서에 약 800여 회 사용된 **עבד**의 기본 의미는 “종(servant)”이다. 그러나

- 
- 3) 단 석비는 **בית דוד**라는 왕조 이름을 기록한 성서 밖의 첫 자료이다. 이 비문의 중요성은 구약성서 이외에 “다윗 왕조(**בית דוד**)”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비문은 발견 당시부터 학자들의 많은 관심과 논쟁을 유발하였다. 가장 큰 논쟁은 **בית דוד**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의 역사성이 어디서부터 유래되는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 셈어 학자들은 한결같이 **בית דוד**는 다윗 왕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비문의 발견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역사성을 다윗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반대로 구약성서의 역사적 기록 가운데 주전 9세기 중엽, 즉 북 왕국의 오프리 왕조에 관한 기록부터 역사성이 있음을 주장해 온 톰슨(T. L. Thompson)과 렘케(N. P. Lemche) 같은 학자들은 **בית דוד**는 다윗 왕조를 나타내는 *beit david*가 아니라 지명을 나타내는 **ביתדוד**(*beitdod*)라고 주장하였다. N. P. Lemche, *Ancient Israel: A New History of Israelite Societ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8); T. L. Thompson, *Early History of the Israelite People: From the Written and Archaeological Sources* (Leiden; New York: Brill, 1992).
- 4) *Bit Humri*라는 표현은 티글라트빌레셋 3세(Tiglath-pileser III: *ANET*, 283-284), 아다드니라리 3세(Adad-nirari III: *ANET*, 281-282), 그리고 사르곤 2세(Sargon II)의 기록(*Winckler, Sar.* 148:31-32) 등에 나타난다.
- 5) 그러나 P. R. Davies와 E. A. Knauf는 **ביתדוד**를 *bayt dawid*로 읽기보다는 *bayt d'ād*로 읽는다. 따라서 이들은 **ביתדוד**을 다윗 왕조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의 지명으로 이해하고 있다. P. R. Davies, “House of David” Built on Sand: The Sins of the Biblical Maximizers,” *BAR* 20:4 (1994), 54-55; E. A. Knauf, “BaytDawid ou BaytD'od?” *BN* 72 (1994), 60-69.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왜냐하면 **בית**와 사람 이름(PN)이 결합되어 지명을 나타내는 예를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בית** + PN의 형태는 왕조의 이름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는 오프리 왕조(**בית עמר**)의 예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참조, A. Rainey, “The “House of David” and the House of the Deconstructionists,” *BAR* 20:6 (1994), 47. 최근 렌스버그(G. A. Rendsburg)는 **ביתדוד**을 다윗 왕조로 해석하며 **בית** + PN이 왕조를 의미하면서 **בית**와 PN 사이에 구분점이 없는 다른 아람어 비문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בית הדד**(텔 페케리에비문 I:17), **בית אל**(*KAI* 222:A:34) G.A. Rendsburg, “On the Writing **ביתדוד** in the Aramaic Inscription from Tel Dan,” *IEJ* 45 (1995), 22-25, 특히 22-23. 그러나 *Bit Humri*가 오프리 왕조 이후부터 사용된 것처럼 **בית דוד**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유다 왕국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단어가 국제 관계, 특히 국제 조약관계를 나타낼 때는 종의 의미보다는 “봉신”(vassal)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sup>6)</sup> 링그렌(Ringgren)도 עבבּ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종”을 뜻하지만 열왕기하 17:3과 같은 외교적인 문서에서는 계약에 의하여 봉신이 되었을 때 봉신국의 왕을 지칭하거나 봉신국 왕이 자기 스스로를 지칭하는 호칭이라고 주장한다.<sup>7)</sup>

열왕기하 16:7에서 아하스는 앓수르 제국의 왕 디글랏빌레셋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사신을 보내어 자신을 עבבּ וּבִנְךָ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아들”)라고 소개한다. 본문은 외교적인 용어로서 당시의 국제 정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다. 본문 가운데 아하스가 עבבּ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자신이 디글랏빌레셋에게 속해 있는 봉신임을 나타내는 표시이다.<sup>8)</sup> 또한, 살만에셀 5세가 사마리아를 공격하였을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7:3의 עבבּ וְהוּשַׁע לוֹ הוּשַׁע라는 표현도 “호세아가 그의 봉신이 되어”라고 고쳐야 한다.<sup>9)</sup> 따라서 코간과 타드모르도 열왕기하 17:3을 “Hoshea became his vassal”로 번역하였다.<sup>10)</sup>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6:7의 עבבּ וּבִנְךָ를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번역인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아들” 대신 “당신의 봉신이요, 당신의 아들”로 번역해야 한다.

따라서 עבבּ는 본문에 따라서 각기 달리 해석되어야 하며, 외교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본문에서는 עבבּ를 반드시 “봉신”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2. 관직명에 대한 번역

정치 조직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와 함께 관직명을 나타내는 용어의 정확한 우리말 번역 또한 매우 어렵다. 가장 큰 원인은 아직도 고대 이스라엘의 정확한 정부 조직에 관한 연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구약성서의 기록만을 가지고는 고대 이스라엘 관리의 정확한 기능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고대 이스

6) HALOT 2, 774-776.

7) H. Ringgren, “עבבּ”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Band V (Stuttgart: W. Kohlhammer, 1986), 998.

8) 고대 근동의 문서에서 구약성서처럼 עבבּ וּבִנְךָ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은 매우 드물며 일반적으로는 עבבּ만 사용된다. 아카드어로 구약성서와 같은 *aradka u marka anku* (“나는 당신의 종이며, 아들입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EA 158:1-2; 288:66 뿐이다.

9) 히브리어 전치사 ל의 용법 가운데 소유격(genitive)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소유의 의미(“belonging to”)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בֶּן לִישׁי (삼상 16:18) 나 מַמְתָּ לִירִבְעֵם (왕상 14:11) 등이 그 예이다. HALOT 2, 509.

10) M. Cogan and H. Tadmor, *II Kings*,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88), 195.

엘의 행정 조직의 규모를 고대 근동의 주변국가의 규모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변 국가의 기록을 통하여 구약성서의 관직에 대한 정확한 번역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글에서 다루는 관직명은 מלך과 סריס, סגן, נער 그리고 שר העיר 등이다.

## 2.1. מלך

히브리어 관직명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מלך이다. 이 단어는 구약성서에 약 2500여 회 등장한다. 히브리어 동사 מלך("to rule")에서 기원한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왕(king)" 혹은 "통치자(ruler)"이다.<sup>11)</sup> 구약성서 내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מלך은 "왕"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발굴 결과 나타난 인장이나 인장 각인에 기록된 מלך은 모두 "왕"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약성서 본문 가운데 시대착오적인 기록이나 지혜문학에 사용된 מלך은 왕으로 번역하기보다는 "통치자(ruler)"로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창세기 36:31의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라는 본문에서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란 표현은 "에돔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특히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던 왕이 있기 전이란 시기적으로 사울 이전 시대를 의미한다.<sup>12)</sup> 본문의 기록에는 8명의 왕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들의 통치 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런데 에돔의 왕권이 형성된 시기에 대하여는 이스라엘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형성되었다는 데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창세기 36:31에 기록된 에돔의 왕은 왕권 이전의 에돔의 통치자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창세기 36:31의 מלך은 왕으로 번역하기보다는 "통치자" 혹은 "지도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마찬가지로 민수기 31:8의 מלכי מדין은 "미디안의 왕들"이라기보다는 "미디안족의 족장들(tribal chiefs)"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sup>13)</sup>

또한 사사기 9장에 등장하는 "왕"도 "통치자" 혹은 "지도자"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 이유는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는 아직 이스라

11) HALOT 2, 591-592.

12) H. Gunkel, *Genesis* (Macon, Georgia: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378-279. 궁켈은 이 시기를 다윗 이전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로 보았으며, 그러나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치하기 이전시대를 의미할 수도 있음을 제시하였다.

13) J. Liver, "King, Kingship," *Encyclopedia Judaica* X (Jerusalem: Encyclopedia Judaica, 1972), 1011-1020, 특히 1011.

엘에 왕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왕이라는 용어보다는 통치자 혹은 지도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 2.2. 고급 관직명으로서 עבד

עבד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 외교관계에서는 “봉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관직명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עבד + המלך (혹은 RN)의 형식을 취한다.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하 22:12절에 기록된 아사야이다.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아사야는 עבד המלך עשיה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시신(侍臣)’이라고 모호하게 번역하였지 정확한 관직명을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아사야와 함께 언급되는 다른 두 명의 경우에는 그들의 관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עבד המלך이라는 표현이 하나의 관직명일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또한 열왕기하 25:8에서는 느부사라단에 대해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장 관 느부사라단”이라 하여 עבד라는 단어의 관직명을 살리지 못하였다: נְבוּזַרְאֲדָן רַב טַבָּחִים עַבְד מֶלֶךְ בָּבֶל. 시신이나 신하라는 것은 단지 왕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관직명이 아니라는 점에서 바른 번역이라 볼 수 없다.

עבד המלך이 관직명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형식으로 기록된 많은 인장이 시리아-팔레스틴 지역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עבד המלך לגרליהו이라는 인장이 각인된 진흙덩이가 유다 산악지대에서 발견되었다. 인장 각인에 기록된 그달라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아히캄의 아들로 여기고 있다.<sup>14)</sup> 또한 עבד המלך ליאזניהו이라고 기록된 인장이 미스바에서 발견되었다.<sup>15)</sup> 이외에도 많은 인장 혹은 인장각인이 발견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עבד המלך 대신 עבד + RN(왕 이름)이 기록되기도 한다. 이러한 예는 עבד ירבעם이라고 기록된 인장 각인이 발견되었다.<sup>16)</sup> 여기에 기록된 ירבעם은 구약성서에 기록된 여로보암 1세(주전 928-907)<sup>17)</sup> 혹은 여로보암 2세(주전 784-748) 가운데 한 왕이

14) N. Avigad, *Hebrew Bullae from the Time of Jeremiah: Remnants of a Burnt Archive*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76), 24-25.

15) C. C. McCown, et al., *Tell en-Nasbeh 1: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Results* (Berkeley: The Palestine Institute of Pacific School of Religion;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1947), 163.

16) N. Avigad, *Corpus of West Semitic Stamp Seals* (Jerusalem: The Israel Academy of Sciences and Humanities, 1997), 47.

17) G. W. Ahlström, “The Seal of Shema,” *Scandinavian Journal of the Old Testament* 7 (1993), 208-215.

다.18) 따라서 **עבֵר המלך**이라는 직책은 ‘시신’ 혹은 ‘신하’라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왕실 고관(royal ministry)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관직이 어느 정도의 직위이며, 어떤 기능을 가졌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일반적인 신하를 의미하지 않음은 알 수 있다. 열왕기하 22:12의 경우처럼 시신이거나 근신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이 관직명을 정확히 기록할 수 없을지라도 시신이나 신하로 번역하기보다는 “왕실고관(royal ministry)”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 2.3. 시장 [שַׂר (ה)עִיר]

**שַׂר (ה)עִיר** 혹은 **שַׂר הָעִיר**이라는 관직명이 등장한다(왕상 22:26, 왕하 10:5). 한글구약성서는 이 관직을 부윤(府尹)이라고 번역하였다. 이 관직에 대하여 웰러와 바움가르트너는 “시장(major)”으로 번역하고 있다. 특히 구약성서에서 이러한 관직은 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시장에 국한되어 사용되었다.

구약성서에서 **שַׂר (ה)עִיר** 혹은 **שַׂר הָעִיר**이라는 호칭은 사마리아의 아몬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등장한다(왕상 22:26). 유다에서는 요시야 시대의 여호수아(왕하 23:8)가 이 관직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역대하 34:8에 의하면 요시야 통치 18년 때에는 마아세야가 이 관직명을 가지고 있다. 마아세야는 성전 수리의 책임을 맡고 파견되었다. 그런데 역대하 29:20에 의하면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의 부윤들(שָׂרֵי הָעִיר)을 모아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는 같은 시대에 부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고학적인 발굴의 결과 **שַׂר (ה)עִיר**이 새겨진 인장 각인이 발견되었다.<sup>19)</sup> 그런데 이 인장각인에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도장이 이 관직명을 가진 여러 사람에게 의하여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쿤틸레트 아주르드(Kuntilet 'Ajrud)에서 발견된 항아리에 **לְשַׂר עִיר**<sup>20)</sup>가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עַר שַׂר**과 **שַׂר הָעִיר**은 같은 시장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도시의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말해준다. 구약성서에서 **שַׂר הָעִיר**은

18) E. Kautzsch, “Ein althebräisches Siegel,” *Mitteilungen und Nachrichten des Deutschen Palästina-Vereins* 10 (1904), 1-4.

19) N. Avigad, “The Governor of the City,” *IEJ* 26 (1976), 178-182; H. Geva, “The ‘Governor of the City’ Bulla,” H. Geva ed., *Ancient Jerusalem Revealed*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4), 138-140.

20) Z. Meshel, “KuntilaAjrud - An Israelite Site on the Sinai Borde,” *Qadmoniot* 36 (1976), 119-124, 특히 122 (Hebrew).

수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שר העיר는 수도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시장을 의미하고, שר ער는 수도를 제외한 행정적인 중심지의 장(長)을 의미한다.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구약시대의 행정 중심지는 하솔, 므깃도, 라기스, 게셀, 단 등이다.<sup>21)</sup>

שר (ה)עיר 혹은 שר העיר שר אשר의 정확한 명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데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기록문헌에서 שר (ה)עיר 혹은 שר העיר שר אשר에 해당하는 아카드어 명칭은 *rāb āli* 혹은 *ša muḫḫi āli*이다.<sup>22)</sup> 따라서 고대 이스라엘의 시장의 권위와 기능을 알아보려면 아카드어의 *rāb āli*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아카드어에서 이 관직은 왕실 가족의 재산을 보호하는 상급 관리였다.<sup>23)</sup> 그는 세금을 부과하고 거두어 세금을 총독에게 보냈다.<sup>24)</sup> 때때로 *rāb āli*는 군대의 지휘관이 되기도 하였다.<sup>25)</sup> *rāb āli*는 도시의 경제, 군사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자로서 총독의 지휘 아래 있었다. 사마리아에서 발견된 췌기문자가 기록된 조각에도 *rāb āli*라는 관직명이 포함되어 있다.<sup>26)</sup> *rāb āli*의 변형된 형태인 *ša muḫḫi āli*는 도시를 관리하는 고위 관직으로 기록되어 있다.<sup>27)</sup> *ša muḫḫi āli*는 왕에 의하여 임명되며,<sup>28)</sup> 왕의 명령을 수행한다.<sup>29)</sup>

아카드어 기록문헌을 분석한 결과 שר (ה)עיר 혹은 שר העיר שר אשר라는 관직은

- 
- 21) Z. Herzog, "Administrative Structures in the Iron Age," A. Kempinski and R. Reich, eds., *The Architecture of Ancient Israel: From the Prehistoric to the Persian Periods*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2), 223-230.
- 22) G. B. Lanfranchi, "Consensus to Empire: Some Aspects of Sargon II's Foreign Policy," *Assyrien im Wandel der Zeiten*, HSAO 6 (Heidelberg: 출판사, 1997), 81-87, 특히83 note. 12.
- 23) *rāb āli* of Lahiru는 왕의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였다: PN LÚ.GAL.UR ša URU Lahira ša bī ummi šarri ("the governor of city Lahiru who is in charge of the estate of the mother of the king") (ADD 301:1). 다른 기록에서는 *rāb āli*가 고위 관리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PN LÚ abarakku ša LÚ.GAL.URU.MEŠ-te ša LÚ.A.BA ("PN the steward of the governor of the city of the (court) scribe") (ABL 633 r.15).
- 24) "The silver dues of the prefects and village managers imposed on the local population have been handed over" (SAA I 176 4-5); "The village manager of the (governor) of Til-Barsip said of eight [horses]: "If I have received the horses, let me get the mules too!" [...] he has not received (them); [the king] my lord [should ask] A ššur-belu-taqin" (SAA I 183 r.15-20).
- 25) *rāb āli* was a leader of the contingent the Itu'a tribe. LÚ.Itūaja issi LÚ.GAL.UR assapra ("I sent the contingent of the Itua tribe with the governor of the city.") (ABL 424 r.3).
- 26) G. A. Reisner, C. S. Fisher, and D. G. Lyon, *Harvard Excavations at Samaria 1908-1910*, vol. 1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24), 247; CADA, 390<sup>b</sup>.
- 27) CADA, 390<sup>b</sup>.
- 28) LÚ ša UGU.UR šarru bēli lipqie ("the king my lord should appoint a *ša muḫḫi āli*-official.") (ABD 150 r.17).
- 29) LÚ.ḫazannu LÚ ša UGU.URU ittalkuni m ā abat šarri ("the *hazann*" and the official in charge of the city came saying, "By order of the king.") (ABL 710 6).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로서 오늘날 시장에 해당하는 관직이다. 그러나 그의 정확한 직위는 알 수 없다. 개역한글성서에서  $\text{הַעִיר שָׂר}$  (הַעִיר) 또는  $\text{שָׂר הָעִיר}$  또는  $\text{שָׂר הָעִיר}$ 을 부윤이라고 번역한 것은 바른 번역이지만<sup>30)</sup> 그러나 오늘날 부윤이라는 직책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 2.4. 군사 지도자 $\text{סָרִיס}$

히브리어 번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text{סָרִיס}$ 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는 점이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text{סָרִיס}$ 를 모두 “내시” 혹은 “시중”이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text{סָרִיס}$ 는 본문의 상황에 따라 그 의미를 다르게 번역해야만 한다.

열왕기하 23:11에서는 “시중”으로, 열왕기하 24:12에서는 “내시”로 그리고 예레미야 29:2에서는 “환관”으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우리말의 환관 혹은 내시의 가장 중요한 신체적 특징은 거세이다. 따라서 이들은 신랑이 상한 자들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text{סָרִיס}$ 라는 직책을 갖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경우 내시가 존재하였는가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러한 질문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명기 23:1 때문이다: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와 그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명기의 구절을 근거로 한다면 하나님의 총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이스라엘 왕궁에서 봉사하는 자로서 왕을 섬겼다는 것이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만약  $\text{סָרִיס}$ 가 내시나 환관이라면, 과연 열왕기하 18:17에 등장하는 앗수르 제국의 군대 지도자  $\text{סָרִיס־רַב}$ 도 내시 가운데 우두머리를 뜻하는가 하는 의문이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text{סָרִיס}$ 는 내시를 뜻하기도 하지만 군대 지도자 가운데 하나의 직책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켈러와 바움가르트너는  $\text{סָרִיס}$ 의 뜻을 (1) “고위 관리(high official)”나 (2) “내시” 혹은 “환관(eunuch)”으로 구별하고 있다.<sup>31)</sup>

그렇다면 구약성서의  $\text{סָרִיס}$ 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 원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궁중에서 일하는 자이거나 혹은 이방인 가운데 그 직책이 분명히 구별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text{סָרִיס}$ 를 “고위 관리” 혹은 “군사 지도자”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text{סָרִיס}$ 가 앗수르-바벨론-페르시아 제국의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시”나 혹은 “환관”으로 번역해도 무관하다.

30) 1895년 조선의 행정구역개편 때 전국의 23 개의 큰 도시를 부로 개칭하면서 그 장을 부윤이라 하였다. 따라서 부윤이란 도시의 시장을 의미한다.

31) HALOT 2, 769-770.

전자에 속하는 것은 사무엘상 8:15; 열왕기상 22:9; 열왕기하 8:6; 9:32; 18:17; 23:11; 24:12, 15; 예레미야 29:2; 34:19; 38:17; 39:3-13; 41:16; 52:25 등이고 후자에 속하는 것은 창세기 37:36; 39:1; 40:2, 7; 열왕기하 20:18; 이사야 39:7; 에스더 1:10, 12; 15; 2:13, 14-15; 4:4-5; 6:2, 14 등이다.

## 2.5. 군사 지도자 נַעַר

일반적으로 “소년(young boy)”을 뜻하는 히브리어 נַעַר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32)</sup> 열왕기상 8:43, 열왕기하 5:20; 8:4 등에서는 젊은 사환(young attendant)의 의미로 사용되었다.<sup>33)</sup> 사무엘하 9:9에서 נַעַר를 “사환”으로 번역하였으나 본문에서 시바(נַעַר)는 사울 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사울의 관리인(custodian)이었다. 그러나 사사기 7:11; 9:54, 사무엘상 14:1에서 נַעַר는 “무기를 든 자(armor-bearer)”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우리말 성경은 이 구절들에서 사용된 נַעַר은 “부하”로 번역하고 있다. 사무엘하 1:5에서는 “소년”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여기서는 “무기를 든 자” 혹은 “부하”로 번역해야 한다. 사무엘하 1:5의 본문 상황에서 이 נַעַר는 사울의 진영에서 나와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소년이라는 번역은 바람직하지 않다.<sup>34)</sup>

נַעַר가 고위직 관직이라는 사실은 고고학 발굴 결과 나타난 인장이나 인장 각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אֱלִיָּאִים נַעַר יוֹכָן 여호야긴의 왕실 재산을 맡은 엘리야킴)에서 נַעַר은 왕의 재산을 맡은 관리로 이해된다.<sup>35)</sup>

뿐만 아니라 군대 지휘관으로서 נַעַר는 고위직으로서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는 정도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נַעַר는 이스라엘 왕국의 특수한 부대에 속한 군인으로 적의 동태를 살피는 정찰자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맥도널드는 נַעַר가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sup>36)</sup>

그러나 נַעַר가 정확하게 어떤 직위에 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군사적인 상황에서 사용된 נַעַר는 “군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따라서 사무엘하 1:5의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을 “자기에게 고하는 군인”으로 번역하

32) HALOT 2, 707.

33) N. Avigad, “New Light on Na’ar Seal,” F. M. Cross, W. E. Lemke and P. D. Miller, Jr., eds., *Magnalia Dei: The Mighty Acts of God: Essays on the Bible and Archaeology in Memory of G. Ernest Wright* (New York: Doubleday, 1976), 294-300, 특히 294.

34) 개역개정판에서는 청년으로 번역하였는데 이 역시 전쟁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번역이다.

35) N. Avigad, “New Light on Na’ar Seal,” 295.

36) J. MacDonald, “The Status and Role of the Na’al in Israel Society,” *JNES* 35 (1976), 147-170, 특히 169.

는 것이 타당하다.

## 2.6. $\text{גַּבִּיר}$ / $\text{סַכֵּן}$ 의 바른 번역

구약성서의  $\text{גַּבִּיר}$ 은 우리말로 민장(民長)(느 4:8, 13; 5:7; 7:5 등) 혹은 감독 겔 23:12, 23), 방백(사 41:25), 박사(단 2:48; 3:2, 3, 27; 6:8)로 번역되어 있다. 민장이란 면장의 동의어로서 면의 행정을 통괄하는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런데 중국성경에서는  $\text{גַּבִּיר}$ 을 모두 관장(官長)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관장이란 시골 백성들이 고을의 원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또한 감독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직책이나 직능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다. 영어성서의 번역을 살펴보면 NRSV와 NJB에서는 offici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REB와 NAB에서는 magistrate 그리고 SJB에서는 prefect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다.

$\text{גַּבִּיר}$ 은 에스겔 23:12, 23에서 총독과 함께 사용되는데, 이것으로 보아 상당한 지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text{גַּבִּיר}$ 이나  $\text{סַכֵּן}$ 은 같은 어근에서 유래되었으며 아카드어 *šaknu*에서 유래되었다.  $\text{סַכֵּן}$ 은 많은 셈어 비문에 등장하며 일부 학자들도  $\text{סַכֵּן}$ 은 페니키아 관직명이며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관직명은  $\text{אֲשֶׁר עַל הַבַּיִת}$ 이라고 주장하는데<sup>37)</sup> 이럴 경우  $\text{גַּבִּיר}$  혹은  $\text{סַכֵּן}$ 은 왕실을 맡은 관리(steward)이다.

우리는 현대어 번역을 통해서 볼 때 우리말 성서 번역의 민장이란 단어가 부적합함을 알 수 있다. 성서의  $\text{גַּבִּיר}$ 은 민장보다는 더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위치 또한 민장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성서가 민장의 역할이나 지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러나 구약성서에 사용된  $\text{גַּבִּיר}$ 이란 단어의 용례와 성서 밖의 여러 문서에 나타난 *šaknu*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text{גַּבִּיר}$ 의 역할과 기능을 유추할 수 있고, 민장보다는 더 정확한 용어를 제시할 수 있다.

## 3.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볼 때, 구약성서를 우리말로 번역함에 있어서 정치적 용어는 본문의 상황뿐만 아니라 구약성서의 다른 부분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발굴 결과 드러난 많은 비문과 기록들을 통하여 히브리어의 원래적 의미를 찾아 우리말에 가장 가깝게 번역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특히 언어의 사회성을 고려하여 현대인이 가장

37) H. Wildberger, *Jesaja*, Band 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Verlag, 1978), 835-837.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비슷한 용어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 주요어

히브리어 성서, 구약성서 관직명, 셈어, 쉼기문자, 아카드어

\* 약자표

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JB: New Jerusalem Bible

REB: Revised English Bible

NAB: New American Bible

SJB: The Standard Jewish Bible

<Abstract>

## A Study on the Korean Translations of Official Titles in the Old Testament

Prof. Young-Jin Kim  
(Yonsei University)

In translating the Hebrew Bible into Korean, it is difficult to choose proper terms for official titles.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determine proper Korean terms for some political and official titles such as בית, עבד, מלך, סריס, סגן, נער and שר העיר.

In the political context, בית does not mean house but dynasty. עבד does not mean servant but is the title of an official. Especially סריס has two different meanings: “eunuch” for foreigners but “higher military official” for Israelites. As the same, נער basically means boy or young attendant, but in the military context, it means ‘armor-bearer’ or ‘higher military officer.’

Consequently, this study shows that some political terms should be translated into Korean according to their contexts.